

생활개혁 중점과제
「고운말 쓰기」 교재

바른 말 고운 말

문화체육부

발 간 사

말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소중한 재산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은 말을 통하여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알리고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함께 살아갑니다. 말이 없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고 사회의 안정도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 사회는 예전에 비해 한층 복잡 다양화됨으로써 사람들이 서로 만나고 도움을 주고받을 일이 많아져 말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사회 생활의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말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을 소홀히 여기고 거친 말을 함부로 쓰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거칠고 품위없는 말을 듣는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뜻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풍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안타깝게 여겨 지난 해에 생활 개혁 3대 중점과제의 하나로 '고운말 쓰기'를 선정하여 온 국민이 참여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이 책은 이 운동이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학교나 시민대학, 주민대학 그리고 신문사, 백화점, 기업체 등이 교양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서 이미 95년말 제작 배포한 『바람직한 토론

문화』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한 고운말 쓰기 교재입니다.

이 책은 언어 생활에서 흔히 잘못 쓰는 말들을 중심으로 바로고 고운말을 제시하고 일상적인 예들로 설명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 동안 뜻은 있어도 알맞은 교재가 없어 고운말 쓰기를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단체나 기관들에게 이 책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운말 쓰기는 어느 한 개인의 노력이나 정부의 주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할 때 진정한 ‘고운말 쓰기’가 이루어 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996년 4월 일
문화체육부장관

차 례

I. 머리말	1
II. 말소리	4
III. 표준어와 방언	9
1. 표준어의 기능과 중요성	9
2. 표준어 규정	10
IV. 외래어 · 외국어 · 비속어	20
1. 일본어	20
2. 서구 외래어	33
3. 비어 · 속어 · 은어 · 유행어	37
V. 문장과 표현	44
VI. 언어 예절	50
1. 호칭어 · 지칭어	50
가. 가정에서	50
나. 직장, 사회에서	59

2. 경어법	62
가. 가정에서	62
나. 직장에서	65
3. 인사말	69
가. 아침, 저녁	69
나. 만나고 헤어질 때	70
다. 전화 예절	71
라. 특정한 때 인사말	74
VII. 맺는말	77

I. 머리말

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의사 전달과 감정 표현이다. 즉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 말의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말이 지닌 기능의 전부는 아니다. 말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의 됴됨이를 엿볼 수도 있다. 곧 말은 자신의 인격을 비추어 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이다. 따라서 말하는 방법과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 똑같은 내용의 말일지라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태도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할수록 상대방이 동조할 가능성은 오히려 그만큼 줄어들어간다. 말하는 내용이 아무리 옳더라도 듣는 이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에 거부감을 느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된다. 곧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기는 커녕 오히려 역효과만 낳게 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예절을 중시한다. 예절에는 개인의 몸가짐에서부터 관혼상제, 종교 의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 가운데서도 언어 예절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로부터 우리말에는 경어법이 발달되어 있는 등 언어 예절을 중시했다. 언어 예절이야말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의 하나이다. 이 언어 예절에는 언어 외적인 면, 곧 말하는 태도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예를 들어, 말하면서 필요없이 머리를 흔들다든

가,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말한다든가 하는 등은 다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런데 언어 예절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거칠고 상스러운 말은 언어 예절에 어긋나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쾌감만 주어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위해서도 바르고 고운말을 쓰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바르고 고운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항상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말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즉 발음은 똑똑하게 하여야 하며, 말의 세기, 높낮이, 속도 등이 알맞아야 하고, 말소리는 밝고 부드러워야 한다. 국어의 발음을 바르게 익혀서 정확히 써야 함도 물론이다.

둘째, 표준어를 써야 한다. 방언(사투리)을 함부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방언은 그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므로 긍정적인 점이 많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지방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방언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도 어렵거니와 공연히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급적이면,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셋째,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나 비속어 등을 삼가야 한다.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일본어나 서구 외래어·외국어 등을 쓸 필요는 없다. 비속어나 은어를 자제해야 하는 까닭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른 앞에서

속어를 쓴다면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불경스럽게 여길 것이다.

넷째, 정확한 문장과 올바른 표현을 써야 한다. 잘못된 어법, 비문법적인 문장, 부자연스럽거나 모호한 표현 등은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기 곤란하므로 의사 전달에 큰 장애가 된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서 원만한 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특히 말끝을 적당히 흐려 버리는 문장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어려운 표현을 삼가야 한다. 대화는 가능하면 쉽고 명확한 말로 하는 것이 좋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굳이 어려운 표현으로 전달하는 것은 마치 자신이 지식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어법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상대방을 존중할수록 자신의 인격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괜히 상대방을 낮추어 말하면 마치 자신이 우월해지는 듯이 생각하는 이도 없지 않은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그리 어렵지 않은 일들이다. ‘말’에 대한 관심과 애정만 있으면 된다. 적은 노력으로 ‘바르고 고운말 사용자’라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II. 말소리

말소리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말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발음을 똑똑하게 하여야 한다. 우물우물하거나 중얼거리듯이 말하면 상대방이 알아듣기 어려우므로 똑똑한 발음이야말로 말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더욱이 친한 사이라면 다시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서로 격식을 차려야 하는 관계에서는 상대방으로서도 매번 되묻기도 곤란하다. 원만한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한 발음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소리의 크기가 상황에 따라 적당해야 한다. 상대방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알맞은 크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물론 극장이나 도서관 등에서는 더욱 낮추어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언어 예절에 어긋난다. 사람에 따라서 짐짓 호기롭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귀에 거슬리거나 쉬우니 주의해야 한다.

셋째, 말의 세기, 높낮이, 속도, 휴지(休止), 리듬이 알맞아야 한다. 지나치게 빠르거나 느린 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듣기 어렵게 한다.

넷째, 말소리는 밝고 부드러워야 하며 상황에 따라 엄숙하거나 명랑하여야 한다. 밝은 말소리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자신도 그렇게 느끼게 된다. 물론 조문(弔

問), 문병(問病) 등 상황에 따라서 말은 엄숙하고 정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말소리는 비록 타고난 것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음성을 지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섯째, 국어의 올바른 발음을 익혀 정확하게 구사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다음과 같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겹받침의 발음

겹받침을 주의해서 발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겹받침 ‘ㄱ, ㄴ, ㄹ, ㄷ, ㅂ’은 어말, 어미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넉, 앓다, 넓다, 굶, 훑다, 엇다, 값 등) 그런데 ‘밟다’는 [밥:따](밟다), [밥:찌](밟지), [밤:는](밟는) 등으로 발음해야 한다. ‘발:따, 발:찌, 발:른’ 등으로 잘못 발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ㄹ, ㄹ, ㄹ’도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 ㄷ, ㅂ’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다.(닭, 젊다, 읊다 등) 따라서 ‘꺾적이다’는 [꺾찌카다]로 발음해야 하며 [꺾찌카다]로 발음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밟다, 밟지, 밟습니다’는 [막따], [막찌], [막쌌니다]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 겹받침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꺾고, 꺾거나’, ‘밟고, 밟거나’ 등은 [꺾꼬], [꺾꺼나], [밟꼬], [밟꺼나]로 각각 발음한다.

접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를 들어, ‘닭이, 통닭을, 흙에서’는 [달기], [통달글], [흙게서]로 발음하여야 한다. 흔히 [다기], [통다글], [흐게서]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심해야 한다.

모음

‘냄비’처럼 표준어로 인정된 어휘 외에는 ‘ㅣ’ 역행동화가 일어난 어휘를 쓰지 말아야 한다. ‘아기, 창피, 당기다’를 ‘애기, 창피, 땡기다’로 발음하지 않도록 한다.

‘애’와 ‘에’ 발음을 정확히 구별하도록 한다. ‘애’는 ‘에’보다 혀의 위치가 낮고 입을 더 크게 벌린다. ‘똥개’를 ‘똥게[똥께]’로 발음한다거나 ‘맵다’를 ‘멤다[멤따]’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헤치다’를 ‘해치다’로 발음한다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 버리고 만다.

조사 ‘외’를 ‘에’로 발음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으’로 발음하는 것은 잘못이다. 예를 들어 ‘나의’를 [나으]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의/나에]로 정확히 발음해야 한다.

‘으’와 ‘어’의 혼동을 바로잡아야 한다. ‘으’와 ‘어’는 발음 위치상 가깝기 때문에 흔히 이런 잘못이 나타나는데 입을 조금 더 벌리면 정확히 ‘어’로 발음할 수 있다. ‘더럽다’를 ‘드럽다’라고 하거나 ‘거짓말’을 ‘그짓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 올바른 발음이 아니다.

장단

소리의 길이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국어의 낱말 가운데에는 장단으로 뜻이 구별되는 어휘가 많으므로 소리의 길이에 특히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눈(眼), 말(馬), 발(足), 밤(夜), 벌(原), 솔(松)’은 짧게 발음하지만 ‘눈:(雪), 말:(言), 발:(簾), 밤:(栗), 벌:(蜂), 솔:(刷毛)’은 길게 발음해야 한다.

‘감:다, 알:다, 끌:다, 없:다’ 등은 모두 장음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모음 어미(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어간에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차이가 있다. 즉, ‘끌:다, 없:다’는 똑같이 ‘끌:어, 끌:리다, 없:으니, 없:애다’처럼 길게 발음하는 반면, ‘감:다, 알:다’는 ‘감으니, 감기다, 알아, 알리다’처럼 짧게 발음해야 한다. 이러한 것을 자동적으로 알 수 있는 원리는 없으므로 평소에 훈련을 통하여 하나하나 익히는 수밖에 없다.

동음이의어의 경우 특히 장단을 분명히 하여 뜻을 명확히 나타내어야 한다. 한자어 ‘실패(失敗)’는 짧게 발음하지만 실을 감는 기구인 ‘실:패’는 첫음절을 길게 발음한다. ‘구조(構造)’, ‘사고(思考)’는 짧게 발음하지만 ‘구:조(救助)’, ‘사:고(事故)’는 길게 발음한다. 이러한 장단음을 혼동하여 잘못 발음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평소에 정확한 발음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된소리

바로잡아야 할 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불필요한 된소

리를 들 수 있다. 특히 어두에서 ‘ㄱ, ㄷ, ㅂ, ㅅ, ㅈ’ 등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귀에 거슬리는 발음이다. ‘과→꽂’, ‘가시→까시’, ‘작다→ 짹다’, ‘자르다→ 짜르다’, ‘소주→ 쏘주’로 발음하는 것은 다 잘못된 발음이다. 어두가 아닌 경우에 불필요하게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우로 ‘창구(窓口)’[창꾸], ‘등기(登記)’[등끼] 등을 들 수 있다. [창구], [등기]로 발음해야 한다.

잘못된 자음 첨가와 동화

불필요하게 음운을 덧붙여 발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빠르다, 기르다’에 ‘ㄹ’ 소리를 덧붙여 ‘빨르다, 길르다’라고 하는 잘못을 예로 들 수 있다. ‘빠르다, 기르다’로 정확히 말하여야 한다. 또 ‘신문, 옷감, 젓먹이’는 각각 [신문], [옴감], [젓머기]로 발음하여야 하는데, 각 첫음절의 받침 소리가 다음 첫소리에 동화되어 조음 위치가 변한 [심문], [옴감], [젓머기]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다.

억양

억양은 말의 높낮이, 강약, 긴장, 이완 등을 모두 통틀어 말하는데, 문장의 뜻이나 화자의 감정과 정서를 나타낸다. 국어에서 문장의 끝에서 쓰이는 억양은 그 문장의 종류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의문문은 문장 끝의 억양을 올리고, 평서문은 낮추게 된다. 간혹 화자에 따라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

는 경우가 있다.

특히 문장 내의 높낮이, 강약 등으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코미디에서 종종 보듯 일상적인 억양과 다른 비틀어진 억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Ⅲ. 표준어와 방언

1. 표준어의 기능과 중요성

하나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역에 따라서 음운, 어휘 등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들 각각의 언어를 방언(사투리)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역마다 다른 방언과 달리 표준을 정하여 공통적으로 쓰도록 정한 말이 표준어이다.

방언은 방언대로 그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가치를 지닌다. 방언을 통해 지역 사람들끼리 유대감과 친근감을 지니게 될 수도 있고, 고향에 대한 긍지와 애착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언의 장점을 떠나 한 사회를 제대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공통된 표준어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문이나 교과서를 각 지역의 방언으로 쓴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곧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방언이 아닌 표준어를 써야 하는 것이다. 표준어를 씀으로써 화자가 얻는 이점도 많다. 한 예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

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준어를 쓰는 사람은 곧 교양을 갖춘 사람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표준어의 기능은 보통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의사 소통(意思疏通)의 기능이다. 서로 다른 방언을 쓰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표준어를 씀으로써 의사 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다.

둘째, 우월(優越)의 기능이다. 곧 표준어를 쓰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교양미 있는 사람임을 드러내 주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자신의 품위를 생각하여 격식 있는 자리 등에서 함부로 사투리로 말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준거(準據)의 기능이다. 곧 표준어라는 규범을 지침으로써 더불어 준법 정신을 기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표준어는 여러 모로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씀으로써 자신을 바르고 고운말을 쓰는 사람으로 인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고향에서 방언을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러한 방언이 절대로 바르고 고운말이 될 수는 없다. 스스로의 인격과 품위를 위해서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필수적이다.

2. 표준어 규정

현재 우리가 쓰는 표준어는 [표준어 규정]에 의해 정해진 것

이다. 이 규정은 1988년 1월 19일 문교부에서 고시하고(제88-2호),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이전에는 조선어학회에서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 제정에 이어 1936년에 9,547 어(표준어 6,231 어, 약어 134 어, 비표준어 3,082 어, 한자어 100 어)를 사정하여 공간(公刊)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규범이었다. 현용 [표준어 규정]은 크게 제1부 ‘표준어 사정 원칙’(3장 26항)과 제2부 ‘표준 발음법’(7장 30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1부에서 표준어를 정하는 각 원칙과 대표적인 예들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예시할 수 있는 어휘수가 제한되다 보니 나머지 말 가운데 일반인들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문화부(당시)는 1990년 9월 14일에 약 1,400여 개 어휘를 사정하여 [표준어 모음]을 공표하였다.(공고 제36호) 앞으로도 표준어는 계속 사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요 규정들을 중심으로 잘못 쓰기 쉬운 표준어들을 살펴보자.

제3항 다음 단어들은 거센소리를 가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칸(*간) 털어먹다(*떨어먹다)

‘간’은 한자어 ‘間’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칸’이라고 발음하므로 ‘칸막이, 빈칸, 방 한 칸’처럼 ‘칸’으로 정하였다. 다만 ‘초가삼간, 윗간’처럼 복합어로 굳어진 것은 그대로 ‘간’으로 인정한다. 재물을 다 없앤다는 뜻으로 ‘털어먹다’를 인정한 것이다. ‘밑천을

털다, 도둑이 빈 집을 털다'와 같은 의미이다. 그러나 '먼지떨이, 재떨이'는 바꾸지 않았다.

제5항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서 널리 쓰이는 것은 그것을 표준어로 삼는다.

강남콩(*강남콩) 사글세(*삭월세)

'강남콩'은 '江南'에서 온 것이나 현실음대로 '강남콩'이 표준어가 된 것이고, '삭월세'는 '朔月貰'의 취음으로 현실음인 '사글세'를 인정한 것이다.

제6항 다음 단어들은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돌(*똥) 둘째(*두째) 셋째(*세째) 빌리다(*빌다)

과거에는 '돌'은 생일, '똥'은 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분되었으나 '돌'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역시 과거에는 '둘째, 셋째, 넷째' 등은 '몇 개째'의 뜻이고, 차례를 가리킬 때는 '두째, 세째, 네째'로 썼으나 역시 하나로 통일한 것이다. '빌다'는 '내가 남에게서 빌어오다'로, '빌리다'는 '내가 남에게 빌려주다'로 쓰인 것이나 역시 그 구분을 없애고 흔히 쓰는 '빌리다'로 통합한 것이다.

제8항 양성모음이 음성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다음 단어는 음성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깡충깡충(*깡총깡총) -동이(*-동이) 오뚝이(*오뚝이)

모음조화 규칙에 따라 변화를 인정하지 않았던 예들을 현실 발음을 인정하여 정한 것이다. ‘-동이’를 표준어로 삼음에 따라 ‘쌍동이, 귀염동이, 막동이’가 표준어가 되고 ‘쌍동이, 귀염동이, 막동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추워서 오들오들 떨다’라고 해야 하며 ‘오들오들’이라고 하면 안된다. 다만, ‘삼촌(三寸), 부조(扶助), 사둔(査頓)’ 등은 아직 어원 의식이 남아 있으므로 표준어이고 \삼촌, 부주, 사둔’은 비표준어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제9항 ‘ㅣ’ 역행동화 현상에 의한 발음을 원칙적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만 다음 단어들은 그러한 동화가 적용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내기(*나기) 냄비(*남비)

위 규정에 따라 ‘서울내기, 시골내기’가 표준어이고 ‘서울나기, 시골나기’는 표준어가 아니다. 다만 ‘아지랑이’는 역행동화가 일어나지 않은 형태를 표준어로 인정하고 ‘아지랭이’는 비표준어이다.(제9항 붙임1) 같은 예로 ‘아기, 아비, 지팡이’ 등이 표준어이고 ‘애기, 애비, 지팽이’는 비표준어이다.

또 ‘-장이’와 ‘-쟁이’는 각각 상황에 따라 가려 쓰게 되었는데, 곧 기술자에게는 ‘-장이’를 붙인 말이 표준어이고, 그 외에는 ‘-쟁이’를 붙인 말이 표준어이다. 예를 들어, 기술자를 가리키는 ‘미장이, 유기장이’, 그렇지 않은 ‘멋쟁이, 요술쟁이, 무식쟁이’가 각각 표준어이다.

제10항 다음 단어는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괴팍하다(* 괴팍하다) -구면(* -구면) 미루나무(* 미류나무)

‘미루나무’는 어원적으로 ‘美柳-’이나 발음을 인정한 것이다.

제11항 다음 단어에서는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구려(* -구료) 나무라다(* 나무래다) 미수(* 미시)
바라다(* 바래다) 상추(* 상치) 주책(* 주착) 튀기(* 트기)

위 규정에 따라 ‘미숫가루, 상추쌈’ 따위로 써야 한다. ‘호도(과자)’도 ‘호두(과자)’로 써야 함을 알 수 있다. ‘바라다’에 따라 ‘바람’이 표준어이고 ‘바램’은 비표준어가 된다.

제12항 ‘웃-’ 및 ‘윗-’은 명사 ‘위’에 맞추어 ‘윗-’으로 통일

한다.

다만 1.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위’로 한다.

다만 2.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윗사람’은 ‘위, 아래’의 대립이 있으므로 ‘윗사람’이 표준어이다. 마찬가지로 ‘윗도리(아랫도리), 윗목(아랫목), 윗니(아랫니)’가 표준어가 된다. ‘웃어른’은 ‘아래어른’이 없으므로 다만 2에 따라 ‘웃어른’이 표준어이다.

제14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본말이 잘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준말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무(*무우) 뱀(*배암) 생쥐(*새앙쥐)

제15항 준말이 널리 쓰이고 있더라도, 본말이 널리 쓰이고 있으면 본말을 표준어로 삼는다.

귀이개(*귀개) 수두룩하다(*수둑하다)

제16항 준말과 본말이 다 같이 널리 쓰이면서 준말의 효용이 뚜렷이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삼는다.

거짓부리(거짓불) 노을(놀) 막대기(막대)
 머무르다(머물다) 시누이(시누/시누) 외우다(외다)

위의 제14항에서 제16항까지는 준말과 본말이 모두 있을 경우 어느 것을 표준어로 할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다. 사실 위 규정만으로는 규정에 나타나지 않은 단어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 준말과 본말이 널리 쓰이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속 사정해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사전에 의존하여 가려 쓰는 수밖에 없다.

제15항과 관련하여, 명사에 조사가 붙는 경우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아래로’를 ‘알로’라고 말하는 것은 표준어가 아니다.

제16항과 관련하여, ‘머무르다, 서두르다, 서투르다’와 ‘머물다, 서둘다, 서툴다’가 모두 표준어이다. 다만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머무르-고, 머물-고’처럼 자음 어미(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본말과 준말을 모두 쓸 수 있지만, 모음 어미(-어, -어서, -오 등)가 연결될 때에는 ‘머무르-어(>머물러)’로 써야지 ‘머물-어’로 쓸 수 없다. ‘외우다’와 ‘외다’가 모두 표준어이므로 ‘외워, 외어’를 모두 쓸 수 있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 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귀고리(*귀엣고리) -던지(*-든지)

-(으)려고(*-(으)려고/*-(으)르라고) -습니다(*-읍니다)

‘귀고리’의 옛말은 ‘귀엣골회’ 등이었는데 형태상 그 후신이라 할 ‘귀엣고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귀고리’와 함께 널리 쓰이는 ‘귀걸이’는 ‘추위를 막기 위해 귀에 거는 물건’을 뜻하는 말로는 표준어인데, ‘귀고리’와 같은 뜻으로도 표준어인지는 앞으로 사정해야 할 문제이다. ‘-던지’는 지난 일을 돌이켜 의심이나 원인 따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쓰인다. “몇 명이었던지 생각이 안 난다.”라든가 “얼마나 좋던지 날아가고 싶었다.”와 같이 쓴다. ‘-든지’라고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다만, 선택을 나타낼 때는 ‘-든지’를 쓴다. “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해야 한다. 한편, ‘(집에) 가려고’처럼 ‘-(으)려고’가 표준어인데 ‘(집에) 갈려고’처럼 비표준어인 ‘-(으)르려고’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먹습니다’처럼 ‘-습니다’만 표준어이다. 과거에는 ‘먹읍니다’와 ‘먹습니다’처럼 둘 다 표준어로 인정하고 ‘-습니다’가 더 공손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지금은 ‘먹읍니다[머금니다]’처럼 말하는 사람도 없으므로 ‘-습니다’만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참고로, 이에 유추하여 말을 줄인 꼴 ‘먹음’ 따위를 ‘먹슴’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한다. ‘-습니다’는 존경을 나타내는 어미이지만, ‘먹음’의 ‘-음’은 그와 전혀 상관없이 말을 줄이는 어미이다. ‘먹다’를 줄이면 ‘먹음’이 되고 ‘먹었다’를 줄이

면 ‘먹었음’이 되는 원리일 뿐이다.

제18항과 제19항(규정 내용 생략)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한 것인데, 대표적인 예로 ‘쇠-’와 ‘소-’가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쇠고기’와 ‘소고기’가 모두 표준어가 된다.

제25항(규정 내용 생략)은 널리 쓰이는 한 단어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것이다. 대표적 예로 ‘안절부절하다(*안절부절못하다), 주책없다(*주책이다), -지만(*-지만서도)’ 등이 있다. 흔히 말할 때 ‘했지만서도’와 같이 쓰는데 표준어가 아니므로 ‘했지만’으로 바르게 써야 한다.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가없다/가엽다 -거리다/-대다 -뜨리다/-트리다

‘가없다’와 ‘가엽다’가 모두 표준어이므로 활용할 때 ‘가없어(<가없-어), 가여워(<가엽-어)’가 모두 맞다. ‘출렁거리다, 비틀거리다’ 등과 ‘출렁대다, 비틀대다’ 모두 표준어가 된다. 마찬가지로 ‘쓰러트리다, 깨트리다’와 ‘쓰러뜨리다, 깨뜨리다’ 모두 표준어가 된다.

이상의 [표준어 규정]에 수록된 어휘 외에 흔히 표준어가 아

닌 말을 잘못 쓰는 대표적인 예들로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아이들을 가르키고

꿈이 영글어

구덩이를 메꾸고

하늘을 날으는

휴지를 좇어

거짓말시키지 마

날씨가 개이고

노래를 배워주다

술을 삼가하다

꺼떡하면 주먹질

위의 ‘가르키다, 영글다, 메꾸다, 날으다, 좇다, 거짓말시키다, 개이다, 배워주다, 삼가하다, 꺼떡하면’ 따위는 다 표준어가 아니다. 표준어인 ‘가르치다, 여물다, 메우다, 날다, 좇다, 거짓말하다, 개다, 가르쳐주다, 삼가다, 걸핏하면’을 쓰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날으는’은 ‘르’를 탈락시켜 ‘나는’으로 써야 한다. 이와 같은 잘못은 흔히 발견된다. ‘몸무게가 늘은 사람, 문을 열은 아이, 돈을 많이 벌은 사업가’ 등은 당연히 ‘몸무게가 는 사람, 문을 연 아이, 돈을 많이 번 사업가’와 같이 말해야 한다. 이러한 잘못은 마치 일종의 음운 변화의 경향처럼 널리 퍼져 있다. 평소에 자신과 남의 말을 잘 관찰하여 바로잡는 노력

이 필요하다.

비슷한 경우로, 알맞지 않은 말을 잘못 쓰기도 한다.

돈을 **잊어** 버리고

이론과 현실은 **틀리다**

한글 이름

물건 따위를 잃어 버린 경우에는 ‘잃다’라고 해야 하는데 ‘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틀리다’는 ‘그릇되다’라는 뜻이므로 ‘다르다’는 의미로 쓰일 수 없다. ‘한글’은 우리 문자를 가리키는 말이지 우리말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흔히 쓰는 ‘한글 이름’은 고유어로 지은 이름이라는 뜻이므로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고유어 이름’과 같이 바르게 말해야 한다.

이와 같이 평소에 무관심하게 저지르는 언어 사용의 잘못은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데 있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이다.

IV. 외래어 · 외국어 · 비속어

1. 일본어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점한 기간 동안 우리말은 일본어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다. 광복 후 끊임없는 노력으로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전문 어휘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무심코 쓰는 일본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어떤 말들은 일본말인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 다음과 같은 말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어 볼 수 있는 말들이다.

“그 사람은 정말 **무뎃**뽀야.”

“오늘은 **닭도리탕**이나 먹을까?”

“여기 **와사비** 좀 주세요.”

“**멩멩** 가라로 된 원피스 좀 보여 주세요.”

“너는 **곤색** 치마가 잘 어울려.”

“그렇게 차려 입으니 정말 **비가번쩍**하다, 애.”

“이 스웨터는 **시보리**가 잘 되어 있어.”

“올 여름에도 **나시**가 유행할 것이에요.”

이러한 일본어투 어휘는 크게 ‘가라’와 같은 순수 일본어, ‘사라다’와 같은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 ‘입장’과 같은 일본식 한자어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일본어와 일본식 서구 외래어

아래에 위에서 든 말들을 포함하여 특히 자주 쓰는 일본어투 말들을 들어본다. 당연히 이 말들은 우리말로 고쳐 써야 할 것이다.(표제어들은 현실음에 따라 표기함.)

가꾸목 : ‘각목(角木)’의 일본말이다. ‘각목’이라고 하여야 한다.

가라 : 첫째, 일본말 ‘가라(假)’에서 온 것이 있다. ‘가라 영수증, 가라 서명’ 따위로 쓰이는데 ‘가짜 영수증, 가짜 서명’과 같이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둘째, ‘가라(柄)’에서 온 말로 ‘무늬’ 또는 ‘바탕’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 있다. 일본말 ‘땡땡(點點)’이 붙어 ‘땡땡 가라’로 많이 쓰는데 ‘물방울 무늬’와 같은 우리말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리 : 임시의 뜻을 지니는 일본말(假)이다. 우리말로 ‘임시’ 또는 ‘빌림’과 같은 말을 쓸 수 있다.

가부라 : 바지끝 등을 모양을 내기 위해 접어 올린 것을 가리키는 일본말(鑷)이다. 우리말로 ‘(발)접단’이라고 한다. ‘발-’은 ‘발사돈, 발다리’처럼 바깥을 가리키는 접두사이다.

곤색 : 일본말 ‘곤(紺)’에 한자어 ‘색(色)’이 결합한 말이다. 검은빛이 도는 남색을 가리킨다. 우리 한자음으로 ‘감색’이라고 하거나 ‘진남색, 검남색’과 같은 순화어를 쓸 수 있다.

곤조 : 일본말(根性)로서 속된 느낌을 주는 말이다. 더욱 속

된 말로 ‘곤조통’처럼 쓰이기도 한다. 격식을 갖추지도 못한 말이므로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굳이 쓴다면 ‘근성, 본성, 심지’와 같이 순화된 말을 쓰도록 한다.

기스 : 일본말 ‘기즈(傷)’가 들어온 것으로, 흔히 가구나 기타 다른 물건 따위의 금간 곳이나 흠진 곳을 가리킨다. ‘흠’ 또는 ‘흠집’이라는 우리말로 바르게 쓰는 것이 좋다. ‘생채기’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깡깡 : 작은 굴을 가리키는 일본말(金柑)이다. 오래 전부터 쓰던 우리말로 ‘동굴(童橘)’이라는 말이 있으며 요즘 시중에서 쓰이는 ‘금굴’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다.

나가리 : 입찰 등에서 결말을 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일본말(流)이다. 우리말로 ‘유찰, 깨짐’ 등의 말을 쓸 수 있다.

노가다 : 일본말 ‘도가타(土方)’가 변한 말이다. 우리말로 ‘막 일꾼, 흙일꾼’ 등의 말을 쓸 수 있다.

다마 : 흔히 구슬과 같이 둥근 물건을 가리키는 일본말이다. ‘구슬, 알, 전구’ 등의 우리말을 쓰도록 한다.

다이 : 일본말 ‘다이(臺)’이다. 우리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전화 다이, 당구 다이’처럼 많이 쓰인다. ‘전화 받침, 당구대’처럼 쓸 수 있다.

단도리 : 흔히 우리말로 오해하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역시 일본말(段取)이다. 우리말로 ‘채비, 단속’ 따위의 말이 있다.

단스 : 일본말 ‘단스(簞笥)’이다. 일상 생활에서 보통 옷이나 이불 따위를 넣어 두는 물건을 가리킨다. ‘장롱, 옷장, 이불장’ 따위의 우리말을 쓸 수 있다. ‘차단스’라는 말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역시 ‘차장(茶櫥)’으로 고쳐 쓰는 것이 좋다.

닭도리탕 : 일본말 ‘도리(鳥)’에 우리말이 앞뒤로 붙은 말이다. 우리말 순화어는 ‘닭볶음탕’이다.

데빵 : 일본말 ‘뎃판(鐵板)’에서 온 말이다. ‘뎃판구이’처럼 ‘철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우두머리’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 말은 일본말일 뿐만 아니라 조금은 저속한 말이기도 하다.

덴뿌라 : 네덜란드어 ‘tempero’가 일본말을 거쳐 들어온 것이다. ‘튀김’이라는 우리말을 쓸 수 있다.

땡깡 : 일본말 ‘덴칸(癲癩)’에서 온 말이다. 흔히 어린 아이들이 제 고집대로 마냥 떤 쓰는 것을 가리켜 ‘땡깡 부린다’라고 하는데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원래 ‘미쳐 경련을 일으키는 병’을 말하며 우리 말 한자어로는 ‘간질(癲疾)’이 널리 쓰이고 있다. 물론 ‘땡깡’이 이런 의학적인 뜻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일상적인 뜻으로 우리말로 ‘생떼’라고 할 수 있다.

레자 : 영어 ‘leather’가 일본말을 거쳐 들어온 것이다. 우리말로 ‘인조 가죽’이다.

만땅 : 한자 ‘만(滿)’과 영어 ‘탱크(tank)’가 어울린 일본말 ‘만당구’가 들어온 것이다. 우리말로 ‘가득 (채움/참)’이라고 할 수 있다.

땡끼 : 도금을 가리키는 일본말이다. ‘도금’이라고 하거나 ‘금 입히기’처럼 우리말 순화어를 쓰는 것이 좋다.

무땡땡 : 일본말 ‘무땡포(無鐵砲)’에서 온 말이다. ‘무땡땡로 (일한다)’ 등의 말은 ‘무모하게, 막무가내로, 주먹구

구식으로' 등의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미싱 : 영어 'machine'이 일본말을 거쳐 들어온 것이다. 우리말로 '재봉틀'이라고 하면 된다.

보루박스 : 영어 'board box'가 일본을 거쳐 들어온 말이다. 우리말로 '골판지 상자'라고 할 수 있다.

분파이 : '분배'의 일본말로 보통 속된 느낌을 주는 말이다. 우리말로 '노눔, 노느매기'같은 말이 있다. '노느다'는 어떤 물건을 일정량의 여러 몫으로 나누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비까번쩍 : 일본말 '비까비까(びかびか)'와 우리말 '번쩍번쩍'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당연히 우리말로 '번쩍번쩍'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빠꾸 : 영어 'back'이 일본어를 거쳐 들어온 것이다. 후진을 뜻하는 경우 '뒤로' 등의 말을 쓸 수 있고, 인가 받지 못한 상황을 가리킬 때는 '퇴짜'라고 할 수 있다.

떼빠 : 영어 'sandpaper'에서 'paper'만 떼어 '페파(ペーパー)'라고 한 일본말이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대신 쓸

말로 한자어로 ‘사포(砂布)’가 있고, 고유어로 ‘속새’라는 말이 있다.

펜찌 : 영어 ‘pinchers’가 일본에서 변한 말 ‘펜치(ペンチ)가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순화어로는 ‘자름집게’라고 한다.

사라 : ‘접시’를 가리키는 일본말이다. 같은 식생활 용어로 ‘다마네기, 다꾸앙, 다대기, 와리바시’ 등의 일본말이 여전히 쓰이기도 하는데 ‘양파, 단무지, 다짐(다진양념), 나무젓가락’과 같은 우리말로 완전히 고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데나시 : ‘나시’라고도 많이 하는 말로 역시 일본말(袖無)이다. 우리말 순화어로 ‘민소매, 맨팔옷’ 등을 쓸 수 있다. 또는 풀어서 ‘소매 없는 옷’이라고 할 수도 있다.

소바면 : ‘소바(蕎麥)’라는 일본말에 ‘면(麵)’이 붙은 말이다. 그냥 ‘소바’라고도 많이 한다. 우리말 ‘메밀국수’가 널리 쓰이므로 더 이상 이러한 일본말을 쓸 필요가 없다.

- 쇼바 : 영어 ‘shock absorber’가 줄어든 일본식 외래어이다. ‘완충기’라고 하는 것이 좋다.
- 시다 : 매우 널리 쓰이는 일본말(下)이다. ‘밑일꾼, 결꾼, 보조원’ 등의 우리말이 있다.
- 시마이 : ‘시마이(仕舞い)’라는 일본말이다. 우리말로 ‘마감, 마무리’ 등을 쉽게 찾아 쓸 수 있다.
- 시보리 : 흔히 음식점에서 물수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털실옷 등에서 소매끝을 조이는 ‘조르게’를 가리키기도 한다. 또 사진기의 ‘조리개’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해당하는 우리말을 써야 할 것이다.
- 신빵 : 속어적인 느낌을 주는 일본말(新品)이다. ‘새것, 신품’ 등으로 쓸 수 있다.
- 양꼬 : 떡이나 빵에 넣는 단팥을 가리키는 일본말이다. 우리말로 ‘단팥’이란 말을 쓸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팥소’란 말도 있다. ‘소’는 밤, 대추 따위의, 떡이나 만두 등을 만들 때 맛을 내기 위해 속에 넣는 재료를 가리키는 고유어이다.

야끼만두 : 일본말 ‘야키(燒)’가 ‘만두’에 붙어 된 말이다. ‘군만두’라는 좋은 우리말이 있다.

엑기스 : 네덜란드어의 ‘extract’가 일본말을 거쳐 들어온 것이다. 일본인들은 이 네덜란드어 ‘extract’에서 ‘-tract’를 제외한 ‘ex-’만을 취하여 ‘에키스(エキス: 越幾斯)’라고 한다. 우리 말은 ‘진(津)’이다. 곧, ‘인삼 엑기스’는 ‘인삼 진’이 된다.

엥꼬 : 자동차 기름 등이 다 떨어진 경우 흔히 쓰는데 우리말로 ‘(기름이) 다 떨어졌다’라고 하면 된다.

오너 : 흔히 소유주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오너 드라이버’처럼 많이 쓰는데 이는 일본에서 만든 말이다. ‘손수 운전자’라는 우리말로 쓰는 것이 좋다. 참고로 ‘자가 운전자’라고도 하는데 ‘자가(自家)’라는 말 역시 일본식 한자어로 ‘손수 운전자’보다 좋지 않다.

오야 : 계모임 등에서 흔히 장(長)이 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계주’ 등으로 쓸 수 있다.

와사비 : 널리 쓰이는 일본말(山葵) 가운데 하나이다. 우리말로로는 ‘고추냉이’이다.

요지 : 일본말 ‘요지(楊枝)’가 들어온 것이다. 이 말은 원래 우리말에서 널리 쓰이던 한자어인데 일본에 건너간 것이 다시 일본식 발음으로 우리말에 들어온 것이다. 참고로, 우리말에는 ‘양치질’이라는 말에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우리말로 ‘이쭈시개’라는 말이 있으므로 더 이상 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운짱 : 일본식 말(運-)로서 당연히 ‘운전기사’라고 할 말이다. ‘운짱’은 특히 운전사를 얕잡아 부르는 뜻도 있으므로 결코 써서는 안될 말이다.

잇빠이 : 일본말 ‘잇파이(一杯)’로서 여전히 많이 쓰이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상황에 따라 ‘한껏, 바짝, 가득’ 등의 우리말을 찾아 쓸 수 있다.

쿠사리 : 면박의 뜻을 지니는 일본말(腐)이다. 우리말로 ‘면박, 핀잔’ 등의 말이 있다.

하꼬방 : 얼핏 우리 말 같기도 하지만 역시 일본에서 들어온 말이다. 상자를 뜻하는 ‘하코(箱子)’에 한자어 ‘방(房)’이 결합된 것이다. 우리말로 ‘판잣집’이다.

후카시 : 흔히 여성들이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을 세운 채 빗

어 부풀린 머리를 가리킨다. 아직 널리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순화한 말로 ‘부풀머리’라고 할 수 있다. ‘후카시 넣어 주세요.’라고 할 경우에도 ‘머리를 부풀려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남성들이 주로 쓰는 말로 괜히 힘있는 체하여 남을 겁주거나 위압하려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일종의 비속어로 쓰이기도 한다. 우리 말의 속된 표현으로는 ‘어깨에 힘주다’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 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속된 말은 일본 말이든 우리 말이든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히야시 : 차게 한다는 뜻의 일본말 ‘히야스(冷やす)’에서 온 말이다. 우리말로 ‘차게 하다’라고 하면 된다. 다른 말로 ‘채우다’라는 말도 있다. ‘차다’의 ‘차-’라는 어간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어 생긴 말 ‘채-’에 다시 사동 접미사 ‘우’가 붙어 이루어진 말로 ‘식히다, 차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밖에도 ‘남바, 마후라, 맘모스, 메다기, 바란스, 밤바, 베니아, 부레키, 사라다, 샷시, 스텐, 쉐타, 호꾸’ 등도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이다. 우리말로 고쳐 쓰기 어렵다면 적어도 올바른 발음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넘버, 머플러, 매머드, 미터기, 밸런스, 범퍼, 베니어, 브레이크, 새시, 스테인리스, 센터, 호크’

등이 올바른 외래어이다.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는 또 다른 문제이다. ‘계단, 과소비, 매립, 명찰, 세대주, 승강장, 역할’ 등은 마치 우리 한자어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들이다.

일본식 한자어들은 ‘공란→빈칸’처럼 고유어로 쉽게 바꾸어 쓸 말도 있고, ‘구좌→계좌’처럼 우리식 한자어로 바뀐 말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쳐 쓰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철학, 경제, 화학, 물질, 명제’ 등의 학술 용어는 오늘날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우며, ‘미인, 화장’ 등도 다른 말로 고쳐 쓰기 마땅치 않다. 그러나 일본식 한자어라는 거부감이 강하게 들고, 또 충분히 고쳐 쓸 여지가 있는 말들은 가능하면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말들을 보자.

수입선, 공급원, 매표구, 판매고, 조건부, 가접수, 공수표, 생방송

여기서 쓰인 접사 ‘先, 元, 口, 高, 付, 假, 空, 生’ 등은 일본말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말들이 붙은 ‘공급선, 제조원, 입구, 수확고, 가처분’ 등도 일본말에서 온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수입선’은 ‘수입국’이나 ‘수입처’로, ‘공급원’은 ‘공급처’로, 매표구는 ‘표 사는 곳’으로, 판매고는 ‘판매액’으로, ‘조건부’는 ‘조건을 단’으로, ‘가접수’는 ‘임시 접수’로, ‘공수표’는 ‘헛수표’로,

‘생방송’은 ‘현장 방송’과 같이 고쳐 쓸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고수부지(高水敷地)’라는 말이 있다. 이 어휘 자체는 일본에 없으나 일본식 말인 ‘고수’와 ‘부지’가 우리말에서 합성된 것이므로 일본식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둔치’라는 우리말로 고쳐 쓰도록 하였고 이제 방송에서도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느낌이다. 또 ‘선착장(船着場)’은 원래 일본에서 한자어도 아닌 고유어(후나쓰키바)인데 우리말에 한자어로 들어온 예이다. 역시 ‘나루’와 같은 우리말을 찾아 쓸 필요가 있다.

일본식 한자어 ‘노견(路肩)’을 ‘갓길’로 고쳐 정착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둔 좋은 예이다.

2. 서구 외래어

불필요한 서구 외래어 · 외국어

불필요한 서구 외래어 · 외국어도 바르고 고운말에는 장애가 된다. 외래어는 꼭 써야 할 경우도 있지만 그밖에 자신의 과시욕으로 쓸데없이 남용하는 경우도 있다. 외래어는 다른 언어가 들어와 완전히 우리말의 일부가 된 것을 말한다. ‘버스, 라디오, 검, 아파트, 콜라’와 같은 말들을 들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달리 다른 말도 없을 뿐더러 완전히 국어화한 것이므로 그냥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래어 가운데에는 우리말과 병존하는 경우도 있다. ‘크리스마스, 데모, 이데올로기’ 등은 ‘성탄절, 시위, 이념’ 등의 우리말도 함께 쓰이고 있다. 이런 말들은 외래어

로 써도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우리말로 쓰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는 아직 국어화하지 않은, 말 그대로 외국의 언어이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거의 안 쓰이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토들러, 드레시하다’처럼 종종 쓰이는 말들도 적지 않다. 우리말로 거의 인정되는 외래어도 불필요한 경우 쓰지 않는 것이 좋은데, 하물며 이런 외국어들까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함부로 쓰는 것은 좋지 않다.

‘음식을 서빙하다, 큰 차이로 리드하다, 기준선을 오버하다, 잘 활용한 케이스, 3승 2패를 마크하다’ 등은 흔히 쓰이는 말이지만 ‘음식을 내오다, 큰 차이로 앞서다, 기준선을 넘다, 잘 활용한 경우, 3승 2패를 기록하다’와 같이 얼마든지 우리 말로 고쳐 쓸 수 있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말들은 충분히 오른쪽 열의 우리말로 쓸 수 있는 불필요한 외래어·외국어라고 할 것이다.

내추럴하다	자연스럽다
다이제스트하다	간추리다
디스카운트하다	깎다, 에누리하다
디스플레이	진열/전시
덜릭스하다	화려하다/크다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
랭크되다	자리매김되다
리더십	통솔력, 지도력

리빙룸	거실
보디가드	경호원
소프트하다	부드럽다
쇼킹하다	충격적이다
싱글	독신, 미혼
컬러플하다	다채롭다
티데이블	차탁자
헤어밴드	머리띠

서구 외래어 · 외국어의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한층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급속도로 들어오기 시작한 서구 외래어 · 외국어는 지금도 계속 늘어가고만 있다. 특히 70년대에 이에 대한 각성과 범국민적 운동도 있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서구 외래어의 수용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의 예들 처럼 불필요하게 외래어를 쓰는 것은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화의 바람을 타고 영어를 비롯한 외래어 외국어를 국어에 앞서 중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은데, 이는 잘못된 풍조이다. 많은 사람들이 강조하듯이 세계화는 자기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것을 더욱 굳게 지키고 발전시켜 세계에 널리 알리고, 나아가 남의 문화와 기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잘못 쓰는 외래어

한편 외래어를 쓰는 경우, 바르게 쓰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일상적으로 흔히 쓰는 다음 말들을 보자. 왼쪽 열에 있는 것이 바른 외래어이고 오른쪽 열에 있는 것이 일본말의 영향 등으로 잘못 쓰는 말들이다.

센터	쎄타
텔레비전	테레비, 텔리비전
프라이 팬	후라이 팬
초콜릿	초콜렛, 쯔코렛
로터리	로타리
컬러	칼라
소시지	쏘세지
재킷	자켓
코미디	코메디
슈퍼마켓	수퍼마켓
로봇	로보트
팸플릿	팜플렛
플래카드	플랑카드

흔히 잘못 쓰는 이런 외래어들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일단 어떤 말이 외래어로 정착된 이상 규범에 정한 바에 따라 올바른 형태로 써야 하는 것이다.

3. 비어 · 속어 · 은어 · 유행어

비어 · 속어 · 은어 · 유행어의 실태

비어(卑語)는 매우 천하고 저속한 말 또는 사물을 낮추어 부르는 말 따위를 가리킨다. 욕설이라든가 ‘주둥이, 뱃놈’ 따위의 말들이 다 비어이다. 어느 상황에서도 이런 말들을 써 품위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일상 생활에서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든 것이다.

“임마, 대가리 좀 굴려 봐.”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대갈통 까 버리기 전에...”

“머리꼭이 돌아야 말이지.”

“체기랄, 너 누구야?”

“이놈, 그냥 귀싸대기를...”

“할일 없으면 집에가 잠이나 처자빠져 자.”

“주딩이다 풀 붙였나?”

“이 자식이 눈깔 치켜 뜨는 것 좀 봐.”

“너는 가지도 없지만 싸가지도 없잖아.”

“그럼, 한번 씹어 볼까?”

보다 폭넓게 쓰이는 말들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래 말들을 속되다는 느낌도 없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을 정도이다. 이 말들

은 얼마든지 ‘지다, 화나다’와 같은 바람직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상대팀에 일방적으로 깨졌다.”

“정말 열받는데.”

속어(俗語)는 장난끼 어린 표현이나 사람의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 등을 구사하여 회화에 신선한 느낌을 주기 위한 일종의 말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정부’를 ‘솔뚜정 운전수’라고 하거나 ‘공원, 군인’을 가리키는 ‘공돌이, 군발이’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속어는 보통 친숙한 사이의 대화에서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연히 비속한 어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곧 비어만큼 악의적인 뜻은 없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속된 말이 많은 것이다. 흔히 학생층과 군대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꼭 이들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폭넓게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 속어를 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별하여 가려 쓰기도 하지만, 습관화되어 예기치 못한 실수를 하기도 한다. 따라서 항상 어디서든 품위 있는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어느 상황이든 이런 말들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앵벌이	길에서 동정을 구하는 걸인
고삐리	고등 학생

공돌이	남자 공원
식순이	가정부
호박	못생긴 얼굴
이빨까다	거짓말하다
지방 방송	불필요하게 떠들
왕세련	근사한 여자
뚜껑	모자
골때린다	어처구니없다
쪽팔리다	부끄럽다
뽕 가다	기막히다
끝내주다	최고다
뒤틀다마치다	예상치 못하게 일을 뒤집다
호박씨까다	겉과 달리 몰래 다른 짓 하다
킹카	매우 좋은 교제 상대
캡	최고
야마돌다	화나다
종코주다	무안을 주다

은어(隱語, 변말)는 속어와 달리 비밀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말이다. 직장 등 단체에서 외부에는 비밀인 자신들끼리만 통하는 말이 발달하게 되는데 이를 은어라고 한다. 은어에는 일면 긍정적인 면도 있다. 구성원끼리 친근감을 갖게 하고 능률을 올릴 수 있으며 필연적으로 보안을 유지해야 할 일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역시 은어도 속된 느낌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용에 주의해야 할 일이다. 특히 웃어른한테 은어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이미 바른 언어 생활은 아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은어로서 가치를 잃어버린 말들이 일반적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대체로 속된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은어와 속어는 많은 경우 일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짜가	가짜
바람잡이	날치기 등에서 대상자의 신경을 분산시키는 사람
짱새	경찰
범털	돈 많고 권력 있는 죄수
제비	댄스홀에서 여자를 유혹하는 사람
총대메다	책임지다
강아지	담배
손씻다	나쁜 짓을 그만 두다
동양화	화투
코쟁이	서양 사람

유행어(流行語)도 조심해서 써야 할 말이다. 유행어는 대개 어떤 사건을 계기로 생겨나 일시적으로 널리 쓰이다가 사라지는 말들이다. 텔레비전 등 방송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도 한다. 속어나 은어처럼 처음 들어서는 잘 알기 어려운 말보다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단순히 유행함으로써 유행어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앗’ 하는 감탄사도 유행어가 되기도 한다. 일상적으로 널리 쓰는 말들이 대체로 사회에 대한 풍자, 해학성을 띠거나, 틀에 박힌 말보다는 새로운 표현에 대한 욕구, 재미 있는 대화를 바라는 욕구 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유행어는 상황에 맞는 사건이 지나가면 같이 소멸되거나 신선한 맛이 없어져도 소멸된다. 은어와 마찬가지로 유행어도 일면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 언어 생활을 활기 있게 해 주고 참신한 맛을 느끼게 해 준다. 사회상을 담고 있으며 비판 의식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어는 어느 정도 경박한 느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 무심코 유행어를 쓰다 보면 언어 예절에 어긋나는 일이 적지 않은 것이다.

“못살겠다 갈아보자!”

“공부해서 남 주나?”

“아니, 벌써?”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보통 사람”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기.”

“잘났어, 정말.”

“지구를 떠나라.”

어린이 · 청소년의 언어

위와 같은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 등은 스스로 언어 생활에

서 각별히 유의할 일이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평소에 지도 교육에 힘써야 할 분야이기도 하다. 최근의 한 연구 조사에서 나타난 어린이의 언어 사용 실태에 의하면 전체 어린이 가운데 약 68%가 비속어를 쓰며 그 가운데 가장 큰 동기(전체 어린이의 27%)가 단지 무의식적으로 쓴다는 것이다. 그만큼 어린이 세계에서도 비속어가 일반화되어 있을 정도이다. 물론 중·고등학교에 이르면 비속어의 사용 실태가 더욱 심해진다. 비속어는 대체로 학교에서 친구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약 85%로 가장 많으나, 부모, 텔레비전, 만화 등에서도 배우므로 항상 어디서나 언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래에 어린이들의 비속어 사용 사례들을 들어본다.

개놈, 개똥, 개새끼, 거지, 걸레야, 똥놈, 똥문지기,
머저리, 멍청아, 미련곰탱이, 미친새끼, 씨발, 아가
리닥쳐, 염병하고 자빠졌네, 엇먹어라, 입닥쳐, 죽
올래, 지랄, 찢러분다, 환장했냐…….

어린이들이 쓰는 은어도 적지 않다.

걸작	걸레같은 작품
똥개	귀찮게 따라다닌 아이
만두집	만나서 두드리는 집, 곧 오락실

망년	내가 싫어하는 아이
블루	내가 좋아하는 아이
왕창했니?	돈놀이 많이 했니?
천재	천하에 재수 없는 놈
핸드디스크	오락실
호빵	얼굴이 크고 뚱뚱한 아이...

이러한 어린이의 언어 생활은 중 · 고등학교에서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심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조사 연구 결과이다. 중 · 고등학생들의 비속어, 은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예들을 들 수 있다.

까리다(노려보다), 꼬라박다(손해보다), 꼴치다(마음에 안 들다), 날빵(비행소년), 다구리(몰매), 미지공(미친년 지가 공주인줄 알아?), 뽕뛰다(싸우다), 뺨래기(잘난척 하는 것), 삼질하네(모르네), 십주구리(형편없다), 아다(바보), 좃빵(따돌림을 받는 사람), 캡빵(우두머리).....

이러한 어린이, 청소년들의 언어 실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스스로 고운말을 쓰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언어 실태를 직시하고 개선시키려는 노력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어, 속어, 은어, 유행어 등은 평소에 많이 사용하고 듣

다 보면 무감각해져서 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다. 그러나 어린이, 청소년의 언어 실태를 보면 적잖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말에 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나아가 이들의 언어를 이끌어 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곧 부모를 비롯한 어른들이 스스로 신중하게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요즘 널리 쓰이는 “돈 많이 깨졌어.”와 같은 말이나 “커피 한 잔 때리자.”와 같은 말을 재미있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따라 쓰는 태도는 버려야 할 것이다.

V. 문장과 표현

비문법적인 문장

말할 때에 국어의 문장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잘못 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대표적인 예로 주술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잘못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위태로울 지경으로 만들었다.

아이들이 집에는 피해가 없느냐고 전화가 많이 걸려 왔어요.

위 첫째 문장은 ‘만들었다’의 목적어가 없어 이상한 표현이

되었다. 내용으로 볼 때 ‘지구가’가 목적어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은)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지구를 위태로울 지경으로 만들었다.”와 같이 되어야 한다. 또는 ‘만들었다’를 ‘되었다’로 바꾸어 “엄청난 환경 오염으로 지구가 위태로울 지경이 되었다.”와 같이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문장은 주어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다. “아이들이 집에는 피해가 없느냐고 전화를 많이 걸어 왔어요.”와 같이 써야 서술어가 주어 ‘아이들이’와 호응하게 되어 바른 문장이 된다.

이 예들에서 보듯 말하거나 글을 쓸 때 주어-목적어-술어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외래식 표현

국어 문장에 스며든 일본어나 서구 외래어·외국어의 영향도 작은 문제는 아니다. 이미 널리 쓰인다고 하여 이들을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가려 쓰는 정신도 중요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피동 표현을 들 수 있다.

밤늦게 철수한테서 전화가 걸려 왔다.

월급에 수당이 가산된다.

이런 피동 표현은 오늘날 적지 않게 볼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더하여 영어의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근대 국어만 해도 이런 표현은

국어에서 잘 발견되지 않아 위의 문장은 “밤늦게 철수가 전화를 걸었다.”, “월급에 수당을 가산한다.”가 한층 국어다운 표현이라 할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는 피동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더욱이 다음과 같이 피동 표현을 잘못 쓰는 경우까지 있다.

그 여자는 충주댁이라고 불리워진다.

그 점은 앞으로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진다.

불필요한 진행형의 남용도 일본어의 또 다른 영향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철수가 저 집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다운 문장이다.

철수가 저 집에서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어의 영향은 적지 않다. 흔히 쓰는 ‘~에 다름 아니다’도 대표적인 예이다. ‘~와 다름(이) 없다’와 같이 쓰는 것이 국어의 올바른 표현이다. 또 다음과 같이 속격 조사 ‘의’가 함부로 붙어 쓰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이다.

권위에의 도전

항간에서의 소문

속격 조사는 대체로 다른 조사 뒤에 붙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위의 예도 ‘권위에 대한 도전, 항간의 소문’이 국어에 맞는 표현이다.

- ... 있을 수 있다
- ... 있어야 할
- ... 한(했던)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위와 같은 표현도 일본어의 직접적인 영향이다. 이제는 일반화되어 버릴 수도 없는 말이 되었지만 적어도 조심하여 쓸 필요는 있다.

- ... 보다는 오히려(rather than)
- ... 에도 불구하고(in spite of)
- ... 하기에 충분하다(enough to)
- ... 지 않으면 안된다(must be)

위 예들은 영어식 표현이 일본어를 거쳐 우리말에 들어온 것들이다. 글에서 자주 쓰이는 말들로서 역시 어느 정도는 가려 쓰는 것이 좋다.

특히 지나치게 영어식 색채가 짙은 표현은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예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와 같은 표현은 국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소하다.

군더더기 표현과 오용

말할 때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고 조리 있게 말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요점과는 별로 관계없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든지 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군더더기 표현, 잘못 쓰는 표현도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한 예로, 말할 때 습관적으로 ‘에, 또, 마’ 등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좋지 않다. 듣기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자칫 상대방에게 거만하다는 인상을 주기 쉽다.

또 흔히 잘못 쓰는 예로 ‘~같아요’와 같은 불필요한 말을 남용하는 습관도 버려야 한다. 추측을 나타낼 때는 당연히 써야 하겠지만 “옷이 참 예뻐니다.”처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자신의 감정조차도 “옷이 참 예쁜 것 같아요.”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다.

경어법의 오용도 자주 보인다. “다음은 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게시겠습니다.”는 대표적인 예이다. ‘인사 말씀’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있으시겠습니다’로 써야 한다.

어휘의 본뜻을 잘못 알고 쓰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는 널리 쓰는 오용의 사례이다. ‘자문(諮問)’은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아랫사람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자문하다’가 올바른 말이며 ‘자문을 구하다’는 잘못 쓰는 말이다.

‘득점을 얻다, 공감을 느끼다’ 등도 모두 한자어의 본래 뜻을 몰라 잘못 쓰는 예들이다. ‘득점(得點), 공감(共感)’에 이미 ‘점

수를 얻다, 똑같이 느끼다'의 뜻이 있으므로 '득점하다, 공감하다'로 써야 한다.

현학적인 표현

지나치게 어렵거나 현학적인 표현도 삼가야 한다. 외래어·외국어의 남용뿐만 아니라 한자어의 경우에 특히 심하다. 한자어가 국어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쉬운 말로 쓸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한자어를 고집하는 것은 좋지 않다. 쉬운 예로 '금일(今日)'은 '오늘'로 충분한 것이다. '개전(改悛)의 정(情)이 현저(顯著)하여'(늪우치는 빛이 뚜렷하여)는 매우 고전적인 사례이다. 아래 예들은 주로 글에서 쓰이는 말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예로서 대표적인 것들이다.

공히	같이
결재를 득하다	결재를 받다
병역을 필하다	병역을 마치다
누가 기록하다	보태 적다
공해 저감 대책	공해 줄이기 대책
이미지를 제고하다	이미지를 높이다
지난한 일	매우 어려운 일
우천으로 연기되다	비 때문에 연기되다
내용을 숙지하다	내용을 익히다

이상과 같은 문장과 표현의 오용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따라서 말할 때 항상 조심하고 되새겨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끊임 없는 반성과 훈련이야말로 훌륭한 언어 습관을 지니게 되는 지름길이다.

VI. 언어 예절

올바른 화법은 우리의 언어를 고운 것으로 만들어 준다. 화법이란 곧 언어 예절이라 할 수 있다. 넓게는 말하는 태도, 어조, 억양 등 세세한 것까지 모두 포함되겠지만 대표적으로 호칭어, 지칭어, 경어법, 인사말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대해서 1992년 10월에 문화체육부(당시는 문화부)는 표준 화법을 심의 확정하였다. 그 가운데 흔히 잘못 쓰기 쉬운 대표적인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1. 호칭어 · 지칭어

가. 가정에서

호칭어는 직접 부르는 말이고, 지칭어는 이야기의 상대가 아닌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오늘날 호칭어 · 지칭어가 많이 어지러워져 있고 따라서 바른 말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호칭어 · 지칭어는 잘못 쓰면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바르고 고운 언어 생활을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문제이다.

부모

다음은 어느 라디오 대담 내용이다.

가 : “아빠가 무어무어라고 하세요.”

나 : “가만, 지금 아빠는 남편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 : “아니요, 저의 아빠요.”

나 : “예, 요즘 하도 남편을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가 :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시집갔으니까 아버님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성 출연자인 ‘가’는 두 가지 실수를 하였다. 첫째, ‘아빠’라는 유아어를 사용한 점이고, 둘째, 자신의 살아 계신 아버지를 ‘아버님’이라고 불러야 예의에 맞다고 생각한 점이다.

아버지, 어머니를 부를 경우 어려서는 ‘아빠’, ‘엄마’라고 할 수 있지만 자라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빠’, ‘엄마’라고 하는 것은 바른 호칭이 아니다. 다만 부모는 존경의 대상이기에 앞서 친밀감의 대상이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버님’, ‘어머님’은 타인의 부모나 자신의 돌아가신 부모님을 부르는 말이다.

전통적으로 나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남에게 지칭할 경우 ‘선

친(先親)’이라고 했다. 간혹 살아 계신 아버지나 남의 아버지를 ‘선친’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나의 돌아가신 어머니는 ‘선비(先妣)’라고 했다.

자녀

자녀를 부르는 말은 혼인 전에는 물론 이름을 부르고, 혼인 후에는 자녀가 없으면 이름을 부르되 자녀가 생기면 ‘(○○) 아버지(아범)’, ‘(○○) 어미(어멈)’이라고 한다. 주의할 것은 남에게 자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 장군이’, ‘우리 박 사장이’와 같이 직함을 넣어 말하기도 하는데 은연중 자랑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여 써야 한다.

시부모

시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부른다. 간혹 ‘아버지’, 심지어 ‘아빠’라고까지 부르는 사람도 있으나 전통적으로 시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아직은 예의를 갖추어야 할 어려운 대상이므로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시어머니는 ‘어머님’ 또는 ‘어머니’라고 부른다. 시아버지보다는 함께 하는 시간도 많고 친근한 사이이기 때문에 정이 땀 ‘어머니’라는 말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남편, 남편의 동거나 동서들에게 지칭할 때에는 ‘어머님’이 좋다.

며느리

시부모가 며느리를 부를 때에는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애야’ 등이라고 한다. 다만 ‘애야’는 경우에 따라 며느리가 불쾌하게 여길 수 있으므로 조심해서 써야 한다. 며느리에게 직접 지칭할 경우 ‘아가, 새아가, (○○) 어미(어멈), 너’ 등으로 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 사돈 등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며늘애, ○○ 어미’ 등으로 한다. ‘며늘애’는 대체로 ‘며느리’보다 낮은 말이므로 부모나 사돈 등에게 쓴다. 타인에게는 일반적으로 ‘며느리’라고 한다.

처부모

처부모를 부르는 말은 ‘장인어른’, ‘장모님’이다. 또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요즘 처가와 왕래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쓰는 언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사위

사위는 ‘○ 서방, ○○ 아비(아범), 여보게’ 등으로 부른다.

남편

남편을 부르는 말은 신혼 초, 자녀가 있는 경우, 장·노년기로 나뉜다. 신혼 초에도 가장 좋은 호칭어는 ‘여보’이고, ‘○○씨’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아직 서먹서먹한 관계이므로 ‘여보’의 전 단계로 ‘여봐요’를 허용한다. 그러나 ‘형, 오빠, 아저씨’

등과 특히 ‘자기(야)’ 등의 호칭어는 써서는 안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여보’라고 하고, 아이에 기대어 ‘○○ 아버지, ○○ 아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아빠’라고 하는 것은 친정 아버지와 혼동되기도 하거니와 일본식 어법이므로 절대 써서는 안된다.

장·노년기에는 ‘여보’를 쓰되 ‘영감, ○○ 할아버지, ○○ 아버지’라 할 수도 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당신’이라고 하고, 신혼 초에 한하여 ‘○○ 씨’라고 할 수 있다. 시부모에게 남편을 지칭할 경우 ‘아비, 아범’으로 써야 한다.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그이’(이이, 저이)로 쓴다. ‘개’라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친정 부모에게 지칭할 때는 ‘○ 서방’이라고 한다.

아내

아내를 부르는 말도 신혼 초, 자녀가 있는 경우, 장·노년기로 나뉜다. 신혼 초에 가장 좋은 호칭어는 ‘여보’이고, ‘○○ 씨’라고 할 수도 있다. ‘여보’의 전 단계로 ‘여봐요’를 허용한다. 남편을 부를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야)’ 등의 호칭어는 써서는 안된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여보’라고 하고, ‘○○ 어머니, ○○ 엄마’라고 할 수 있다.

장·노년기에는 ‘여보, ○○ 어머니, ○○ 엄마, 임자, ○○ 할

머니' 등으로 한다. '부인'은 일반적인 호칭이 아니며 '마누라'는 아내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므로 모두 표준 화법이 아니다.

당사자에게 지칭할 때는 '당신'이고 신혼 초에 한하여 '○○ 씨'라고 할 수 있다. 친부모에게 아내를 지칭할 경우 '(○○) 어미(어멈), 그 사람'으로 한다. 부모 앞에서는 낮추어 말해야 하므로 '(○○) 엄마'라고 하지는 않는다. '○○ 씨, 처, 개'라고 해서도 안되며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된다.

처부모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 어미(어멈, 엄마)' 등으로 할 수 있다. 처부모에게는 딸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 엄마'를 허용한 것이다.

타인에게는 '집사람, 안사람, 아내' 등을 쓴다. '와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나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풍조이다.

동기와 그 배우자

남자의 경우 : 형의 아내는 '아주머니(님)' 또는 '형수님'으로 부르고, 동생의 아내는 '제수씨, 계수씨'라고 부른다. 누나의 남편은 '매부, 매형, 자형'으로 부른다. 여동생의 남편은 '매부, ○ 서방'으로 부른다.

여자의 경우 : 오빠의 아내는 '언니' 또는 '새언니'라고 부른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어도 마찬가지이다. 남동생의 아내는 '을케'라고 부른다. '○○ 엄마'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타인을 부르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 언니의 남편은 '형부'라 부르고, 여동생의 남편은 '○ 서방'이라고 부른다. 자신보다 나

이가 많을 경우에는 ‘○ 서방님’이라고 한다.

남편의 동기와 그 배우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아우는 미혼이면 ‘도련님’, 기혼이면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부르고, 남편의 여동생은 ‘아기씨’ 또는 ‘아가씨’라고 부른다. 남편의 여동생이 시집가도 마찬가지이다.

남편의 아우와 누이를 흔히 자녀에 기대어 ‘삼촌’, ‘고모’라고 부르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는 잘못이다. 직접 부르는 호칭이 있음에도 이렇게 간접적으로 부르는 것은 피해야 한다.

남편 형의 아내는 ‘형님’, 남편 동생의 아내는 ‘동서’라고 부른다. 시누이의 남편을 부르는 말은 순위 시누이의 남편은 ‘아주버님, 서방님’, 손아래 시누이의 남편은 ‘서방님’이라고 부른다.

아내의 동기와 그 배우자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다만 자기보다 나이가 적을 때는 ‘처남’이라고 한다. 아내의 남동생은 ‘처남’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아주 어리면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아내의 언니는 ‘처형’이라고 부르고 여동생은 ‘처제’라고 부른다.

처형의 남편은 ‘형님’이라고 부르고 나이가 어리면 ‘동서’라고 부른다. 아내 여동생의 남편은 ‘동서’ 또는 ‘○ 서방’이라고 부른다.

아내의 남자 동기의 부인 곧 처남의 맥을 부르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다. 과거에는 처남의 덕과 시누이 남편은 서로 내외하는 관계여서 부르는 말이 발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날 서로 왕래도 잦다 보니 호칭어, 지칭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일부에서 쓰는 말을 받아들여 아내 오빠의 부인은 ‘아주머니’로 부르고, 아내 남동생의 부인은 ‘처남의 덕’으로 부르도록 하였다. 다만 지칭할 때에는 아내 오빠의 부인도 ‘처남의 덕’으로 한다. 주의할 것은 흔히 쓰는 ‘처남 덕’은 표준어가 아니라는 점이다.

숙질 사이

아버지의 형은 ‘큰아버지’라고 부른다. 지방에 따라서 맏형만 ‘큰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버지의 형은 모두 ‘큰아버지’라고 한다. 한자어로 ‘백부(伯父)’[아버지의 맏형만]라고도 하나 지칭어로는 가능하나 호칭어로는 적당치 않다. 아버지 형의 아내는 ‘큰어머니’라고 한다.

아버지의 남동생은 결혼하기 전에는 ‘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결혼한 뒤에는 ‘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나이가 뒤바뀐 숙질간에도 호칭어와 지칭어는 마찬가지이다. 경어법상으로는 어렸을 때에는 서로 말을 놓고 지내지만, 성년이 되어서는 조카가 아저씨보다 다섯 살 이상이면 서로 존대하고, 다섯 살 미만이면 항렬을 따라서 조카가 아저씨에게 존대를 해야 한다. 장조카인 경우에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버지의 누이는 ‘고모,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그 배우자는

‘고모부, 아저씨’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자매는 ‘이모, 아주머니’라고 하고 그 배우자는 ‘이모부, 아저씨’라고 한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는 ‘외삼촌,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 배우자는 ‘외숙모, 아주머니’라고 한다. 자신의 외삼촌을 자녀들에게 지칭할 때 (아버지의 외가는 진외가(陳外家)이므로) ‘진외종조부(님)’이라고 하거나, 자녀의 편에 서서 ‘진외할아버지’라고 한다. 곧 ‘진외할아버지’는 아버지의 외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외삼촌 모두 가리키는 말이 된다.

조카나 조카딸은 어릴 때는 이름을 부르고 장성하면 ‘조카’ 또는 ‘○○ 아비(아범), ○○ 어미(어멈)’로 쓴다. 다만 시댁의 조카는 나이가 더 많을 경우 ‘조카님’이라고 해야 한다.

조카의 아내는 며느리 부르듯 ‘아가, 새아가, ○○ 어미, ○○ 어멈’으로 부르고 조카사위도 사위 부르듯 ‘○ 서방, ○○ 아범, ○○ 아비’로 부른다.

사돈 사이

같은 향렬 : 발사돈이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돈 어른’ 또는 ‘사돈’이라고 하고,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 ‘사부인’이라고 한다. 안사돈이 안사돈을 부르는 경우 ‘안사돈’이라고 하고, 발사돈을 부르는 경우는 ‘사돈 어른’이라고 한다.

형수나 올케 등의 동기 및 그 배우자를 부를 경우,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위 항렬 : 며느리 사위의 조부모를 부르는 말은 ‘사장 어른’이다. 할머니를 구별하여 ‘안사장 어른’이라고 할 수도 있다. 조부모보다 한 항렬 높으면 ‘노사장 어른’이라고 한다.

아래 항렬 : 며느리 사위의 동기와 그 배우자, 조카 등 아래 항렬을 부를 경우, 남자는 ‘사돈, 사돈 도령, 사돈 총각’으로, 여자는 ‘사돈, 사돈 처녀, 사돈 아가씨’ 등으로 부른다.

나. 직장, 사회에서

직장 사람들

직함이 없는 동료끼리는 남녀 불문하고 ‘○○○ 씨’, 상황에 따라 이름만으로 ‘○○ 씨’라고 하고, 직종에 따라서 ‘선생님’ 또는 ‘○ 선생(님)’으로 할 수 있다. ‘○○야’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상대방이 나이가 많은 경우 ‘○ 선배(님)’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남자 직원이 동료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냥 ‘형’ 하거나 ‘○○ 형’, ‘○○○ 형’ 하는 것은 지나치게 사적인 느낌을 주므로 써서는 안 된다. 여직원이 남자 직원을 ‘○ 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여직원이 여직원을 부르는 경우는 ‘언니’나 ‘○○ 언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 언니, 미스 ○ 언니’처럼 부르는 것은 좋지 않다.

‘미스터 ○’, ‘미스 ○’는 어느 경우에도 쓰지 말아야 할 말이다. 외래어일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불쾌하게 여길 수 있다.

직함이 없는 선배나 나이 많은 동료를 부를 경우 ‘○○○ 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꼭 ‘님’자를 붙여 ‘선배님, 선생님, ○ 선생님, ○○○ 선배님’처럼 부른다. 나이 지긋한 여사원은 ‘○ 여사, ○○○ 여사’로 부를 수 있다.

직함이 있는 상사는 직함에 ‘님’자를 붙여 ‘부장님’처럼 부르는 것이 좋다.

상사가 직함이 없는 아랫사람을 부를 경우 ‘○○○ 씨’를 쓰고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 선생(님), ○○○ 선생(님)’으로 부른다. 나이가 아주 어린 직원은 ‘○ 군’, ‘○ 양’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라도 직장에서 ‘○○야’ 또는 ‘○ 씨’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오늘날 이름 없이 ‘○ 씨’ 하는 것이 높이는 뜻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타인

친구의 아내는 ‘아주머니, (○)○○ 씨, ○○ 어머니, 부인, ○ 여사, ○ 과장(님)[직함이 있는 경우]’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다. 흔히 ‘제수씨, 계수씨’ 등을 쓰기도 하는데 이는 옳지 못하다. 해당 친구에게 지칭할 때에는 ‘(자네) (함(閤))부인’, ‘○○ 어머니’로 한다.

친구의 남편은 ‘(○)○○ 씨, ○○ 아버지, (○) 과장님, (○) 선생님’ 등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골라 쓴다.

남편의 친구는 ‘(○)○○ 씨, ○○ 아버지, (○) 과장님, (○, ○○○) 선생님’ 등으로 부른다. 아내의 친구는 ‘(○)○○ 씨,

○○ 어머니, 아주머니, ○ 선생님(님), ○ 과장(님), ○ 여사(님) 등으로 부른다.

직장 상사의 아내는 ‘사모님, 아주머니(님)’으로 부른다. 당사자나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경우 그대로 쓴다.

직장 상사의 남편은 ‘(○, ○○○) 선생님, (○, ○○○) 과장님’으로 부르고 지칭한다. 해당 상사에게 지칭할 경우에는 ‘바깥어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아내는 ‘아주머니(님), 부인’으로 부르고 지칭한다. 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아주머니(님), (자네) (합)부인’이라고 지칭한다.

직장 동료 및 아랫사람의 남편은 ‘(○, ○○○) 선생(님), (○, ○○○) 과장(님)’으로 부르고, 해당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는 ‘부군, 바깥 양반’으로 지칭한다.

식당 등 영업소의 남자 종업원을 부를 경우 ‘아저씨, 젊은이, 총각’이라고 하고, 여자 종업원은 ‘아주머니, 아가씨’라고 할 수 있다. 어느 경우나 일반적으로 ‘여보세요’라고 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아줌마’는 높이는 느낌이 들지 않으므로 아주 친근한 사이가 아니면 쓰지 말아야 한다.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나이 어린 여종업원을 ‘언니’라고 하거나, ‘어이, 이봐’ 등 함부로 부르는 것도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

식당, 은행, 관공서 등에서 손님을 부르는 말은 ‘손님’이다. 반대로 은행 창구, 관공서 민원실 등의 직원을 부르는 말은 ‘○○

○ 씨, (○) 과장(님), 선생(님)’ 등으로 부른다. 이름이나 직함을 모를 경우 ‘여보세요’라고 할 수 있다.

자기를 가리킬 때 대표적인 예로 부모님의 친구에게 자신을 밝히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저희 아버지가 ○[姓] ○자 ○자 쓰십니다.’, ‘저희 아버지 함자가 ○[姓] ○자 ○자입니다.’, ‘○○ 씨(부장(님))의 아들입니다.’와 같이 말한다. 이 경우 흔히 성(姓)에도 ‘자’자를 붙여 ‘홍자 길자 동자’와 같이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이다.

2. 경어법

우리말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경어법이 잘 발달된 언어이다. 경어법을 잘못 쓰면 대단히 예의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바르고 고운말을 쓰는 데 있어 올바른 경어법을 빼 놓을 수 없다.

경어법에는 “아버지가 저기 나오시는구나.”처럼 말하는 내용의 주체를 높이는 존경법과 “선생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처럼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공손법이 있다.

가. 가정에서

올바른 경어법을 위해서 어휘를 잘 선택해서 쓸 줄 알아야

한다. 용언(동사·형용사)이 여러 개 함께 나타날 경우 대체로 문장의 마지막 용언에 ‘-시-’를 쓴다. 용언마다 ‘-시-’를 넣는 것이 더 높이는 말이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것은 옳지 않다. 지나친 존대는 도리어 예의가 아니고 모든 용언에 ‘-시-’를 넣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지도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할머니가 오셨다가 가셨다.”는 자연스러운 반면 “할머니가 책을 읽으시고 계시다.”는 어색하며 ‘읽고 계시다’라고 해야 한다.

존대말을 잘 가려 쓰는 것도 중요하다. 요즘 흔히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았다.”와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야단’은 어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는 말이다. “아버지한테 걱정(꾸중,꾸지람)을 들었다.”처럼 말해야 한다. ‘묻다’는 ‘여쭙다’, ‘말하다’는 ‘아뢰다(말씀 드리다)’, ‘주다’는 ‘드리다’로 말해야 한다.

존칭의 조사 ‘께서’, ‘께’는 대화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용언의 ‘-시-’로도 충분히 높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어에서는 ‘께서’, ‘께’ 등과 같은 조사보다는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처럼 ‘이/가’, ‘한테’ 등을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그러나 각듯이 존대해야 할 사람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께서’나 ‘께’ 등으로 높여야 한다.

존경의 어휘를 쓰지 않아야 할 자리에 존경의 어휘를 쓰는 것 또한 잘못이다. “아버님은 9층에 불 일이 계시다.”는 옳지 않고 “불 일이 있으시다.”가 옳다. 또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

아오기만 하면 꼭 한 가지씩 저에게 여쭙어 봐요.”처럼 자신에게 물어본 것을 아랫사람이 물었다고 해서 ‘여쭙다’를 쓰는 것도 잘못 쓰는 예 가운데 하나이다.

“제가 했어요”, “그리셨어요?” 등과 같은 ‘해요’체의 말을 잘 가려 써야 한다. 이 ‘해요’체는 가정에서는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 적절히 쓸 수 있는 친밀한 표현으로는 쓸 수 있다. 그러나 각듯이 존대를 해야 할 사람에게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쓰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이 선생님에게 말할 때 “제가 했어요.”보다는 “제가 했습니다.”처럼 말하는 것이 예의에 맞다.

한편 ‘고맙습니다.’처럼 굳어진 인사말이 있는 경우에는 ‘고마워요’와 같은 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에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처럼 아버지께 대해서는 높이지 않는 것이 전통이고 표준 화법이다.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전통도 변하여 아버지보다 윗분에게도 아버지를 높이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하여 현실을 인정하여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셨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아버지보다 윗사람에게 높여 말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모를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낮추어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전통적인 어법에 어긋난다.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부모를 말할 때는 언제나 높여, 학교 선생님에게 아버지를 말할 때에도 “저희(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와 같이 하는 것이 바른 말이다.

남편을 시부모에게 말할 때는 “아범(/아비)이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또는 “그이가 아버님께 말씀 드린다고 했습니다.”와 같이 낮추어 말한다. 남편의 형이나 손위 사람에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시동생이나 손아래 친척에게는 “형님은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또는 “○○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처럼 높이는 것이 원칙이고, “○○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처럼 낮추어 말할 수도 있다. 남편을 남편의 친구나 회사 상사와 같이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신분이 확인되기 전에는 서술어에 ‘-시-’를 넣어 표현하고 남편의 친구나 상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시-’를 넣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남편을 말할 때, 나이 든 사람은 ‘-시-’를 넣어 말해도 되지만 젊은 사람이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아들을 손자, 손녀에게 말할 때에는 “○○야, 아비(아범) 좀 오라고 해라.” 보다는 “○○야, 아버지 좀 오라고 해라.”처럼 ‘아비(아범)’보다는 ‘아버지’로 가리키고 서술어에 ‘-시-’를 넣지 않고 말하는 것이 표준이다. 그러나 손자, 손녀에게 아버지는 대우해서 표현해야 할 윗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서술어에 ‘-시-’를 넣어 “○○야, 아버지 좀 오시라고 해라.”라고 할 수도 있다.

나. 직장에서

존경법

직장에서 동료, 아랫사람, 윗사람에 관하여 말할 때 서술어에 ‘-시-’를 넣을 것인지 넣지 않을 것인지는 듣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동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과장이 아랫사람에게 말한다면 “김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갔어요?” 하고 말한다. 물론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동료를 다른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과장이) 김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와 같이 서술어에 ‘-시-’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시-’를 넣지 않아야 한다.

윗사람에 관해서 말할 때는 듣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님은 은행에 가셨습니다.” 하고 말한다. 가정에서 아버지를 할아버지께 말할 때 “할아버지, 아버지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와 같이 아버지를 높이지 않는 것과는 다르다. 곧 가정과 사회의 언어 예절에 차이가 있다. 종종 “(평사원이) 사장님, 이 과장은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낮추어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는 일본식 어법일 뿐이다.

아랫사람에 관해 말할 때는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관계없이 ‘-시-’를 넣지 않고 “(과장이) 김영희 씨, 김철수 씨 어디 갔어요?” 하고 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랫사람을 그보다 더욱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김영희 씨, 김 과장 어디 가셨어요?”처럼 ‘-시-’를 넣어 말할 수 있다.

거래처의 사람에게 우리 직장의 평사원에 관해 말할 때는 듣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시-’를 넣지 않는다.

그러나 직급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같은 직급의 사람이나 그 아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자기보다 직급이 낮더라도 “(부장이) 김 과장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 ‘-시-’를 넣지만, 그 사람 직급 이상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부장이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김 과장 은행에 갔습니다.”처럼 ‘-시-’를 넣지 않고 말한다.

자기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을 다른 회사 사람에게 말할 때는 상대방의 직급에 관계없이 “(평사원이 과장을 다른 회사 부장에게) 김 과장님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 ‘-시-’를 넣어 말한다.

그러나 전화로 대화를 할 때는 누가 누구를 누구에게 말하든지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래처의 사람을 거래처의 사람에게 말할 때는 대상에 관계없이 존경법의 ‘-시-’를 넣어 말한다.

부장이 과장의 아들에게 말하는 경우처럼 직장 동료와 사적인 관계의 사람에게는 “김 과장(님) 은행에 가셨습니다.”처럼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말할 경우라도 ‘-시-’를 넣어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손법

비슷한 나이의 동료끼리 말할 때는 “(평사원이) 김철수 씨,

거래처에 전화했어요?”, “(과장이) 이 과장, 거래처에 전화했어요?”처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동료간이라도 상대방의 나이가 위이거나 또는 분위기의 공식성 정도에 따라서 “전화했습니까?”처럼 말할 수도 있다.윗사람에게 말할 때에도 어느 경우에도 “전화하셨습니다까?”처럼 하고, 아랫사람에게 말할 때는 “(사장이) 김영희 씨, 거래처에 전화했어요?”처럼 높여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표현이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어리고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는 “전화했니?”처럼 낮춤말을 할 수 있고, “전화했소?”, “전화했나?”도 쓸 수 있다.

다른 회사 사람과 대화를 할 때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직급에 관계없이 “오셨습니까?”처럼 정중하게 대화를 한다.

관공서 등의 직원이 손님을 맞을 때도 관공서 등의 직급에 관계없이 “손님, 도장 가지고 오셨습니까?”처럼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손님도 “이제 다 되었습니까?” 하고 말하는 것이 좋다.

버스 등 우연한 자리에서 연세가 위인 분에게는 “좀 비켜주세요.”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비켜주시겠습니까?”처럼 완곡한 표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어른이 청소년에게 말할 때도 “좀 지나가도 될까?”처럼 완곡하게 말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좋을 것이다.

집에서 어른에 관하여 말할 때처럼 직장에서도 ‘잡수시다’와 같은 높임말이나 ‘뵙다’와 같은 겸양의 말을 적절히 골라 써야

한다. 다만 집에서는 “할아버지 진지 잡수셨습니까?”처럼 ‘밥’에 대하여 ‘진지’를 쓰지만 직장이나 일반 사회에서는 “과장님, 점심 잡수셨습니까?”처럼 ‘점심’이나 ‘저녁’으로 쓰는 것이 좋다. 이 때 흔히 “식사하셨어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과장님이 편찮으셔서 식사도 못 하신대.”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직접 맞대어 말할 때는 쓰지 말아야 한다.

3. 인사말

가. 아침, 저녁

아침에 집에서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로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가 가장 알맞은 말이다. ‘안녕히’ 대신 ‘잘, 편히, 평안히’를 쓰기도 하는데 ‘안녕히’보다 높이는 말이 아니므로 웃어른에게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아랫사람에게는 “잘 잤니?”, “잘 잤어요?”라고 인사한다.

아침에 동네에서 이웃 어른을 뵈었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라고 인사한다. 동년배나 손아래 사람이라도 성인일 경우에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어요?”하고 인사한다. 손아래 미성년자에게는 “안녕?”, “잘 잤니?”와 같이 인사하면 된다.

직장에 출근해서는 윗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다

니까?”를 적절히 골라 쓴다. “안녕하세요?”는 아주 가까운 윗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동료에게는 “안녕하세요?”라고 한다. 아랫사람에게는 “안녕하세요?”, “나왔군.” 등을 쓸 수 있다.

요즘 흔히 “좋은 아침!” 하고 인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어를 직역한 말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에서도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경우도 역시 위의 이유로 모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방송도 집안에서처럼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십시오.”와 같이 인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안에서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어른들께는 꼭 “안녕히 주무십시오.”라고 인사하고 형제들끼리는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나. 만나고 헤어질 때

집안에서 출입할 때는 어른들께 꼭 인사를 여쭙는 것이 좋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리다.”, “다녀오마.” 따위로 인사하는 것이 좋다.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소.” 따위로 인사한다. 인사를 받는 사람도 적절히 인사하도록 한다.

오랜만에 만나게 된 어른에게는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가장 정중한 인사이다. “그 동안 평안하

셨습니까?”는 윗사람에게 쓰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인사말이다. 거리에서 이웃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면 된다.

직장에서 먼저 퇴근할 경우 윗사람에게는 “먼저 (나)가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로 한다. “먼저 실례합니다.”나 “수고하십시오.”는 윗사람에게 쓰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들이 동사무소나 은행 같은 곳에서도 불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와 같은 인사말을 쓰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 이 말은 ‘고생하라’는 말이기 때문에 보통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쓰기 어려운 말이다. 불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말이다.

버스, 전철, 승강기 같은 탈것에서 아는 사람과 마주친 때에도 역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한다. 그 사람보다 먼저 내리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내리겠습니다.”라고 인사하고 남아 있는 사람은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인사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나 동네에서나 만난 사람과 사랑이 담긴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는 것이다.

다. 전화 예절

전화를 받을 때의 말

전화기의 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거는 쪽이 먼저 말을 해야 하는지 하는 문제는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전화를 받는 사람이 먼저 말을 시작한다.

집에서 전화를 받을 경우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표준이며, “여보세요.” 다음에 잠깐 틈을 두고 “안국동입니다.”, “성산 시영아파트입니다.” 등과 같이 지역이나 아파트 이름을 넣어 말하는 것도 좋다.

“네.”라고만 하는 경우도 많으나, 간결하기는 하지만 거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동입니다.” 하고 바로 지역 이름을 밝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네, ○○동입니다.”는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고, “네”라고만 하거나 “○○동입니다”만 하는 것보다 부드럽고 친절한 말이므로 쓸 수 있다.

직장에서는 “네, ○○○○입니다.” 하고 받으면 무난하다.

전화를 바꾸어 줄 때에는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네,) 잠시(잠깐,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바꾸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구(시)라고 전해드릴까요(여쭙까요)?”라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면 인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방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지금 안 계십니다. 뭐라고 전해 드릴까요?”라고 정중하고 친절하게 답하면 된다. 특히 직장에서는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분 후에 다시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다양하게 말할 수 있는데 간결하고 친절한 말씨여야 한다.

전화가 잘못 걸려 오면 무의식적으로 불친절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집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아닌데요(아닙니다), 전화 잘못 걸렸습니다.”고 말하는 것이 좋다.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전화도 제대로 못 거느냐는 느낌이 들어 전화 건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 또 아무 말 없이 수화기를 내려 놓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좋지 않은 행동이다.

전화를 걸 때의 말

집에 전화를 걸 때, 상대방이 응답을 하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입니다. ○○○ 씨 계십니까?”와 같이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기본 예절이다. 나이 어린 사람의 경우 어른이 전화를 받았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 친구 ○○입니다. ○○○ 있습니까?”처럼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어떠한 관계인가를 밝히는 것이 올바른 예의이다. 만약 상대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안녕하십니까? ○○○택입니까?”라고 할 수 있다.

직장에도 집에 걸 때와 같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는) ○○○인데요, ○○○씨 좀 바꿔 주시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면 된다.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때는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미안합니다만) ○○○한테서 전화 왔었다

고 전해주시겠습니까?”와 같이 말하면 된다.

전화가 잘못 걸렸을 때는 귀찮은 듯이 전화기를 탁 놓지 말고 “죄송합니다(미안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렸습니다.”라고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을 때는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만(그만)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하고 인사를 하고 끊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한다. “ 들어가세요”라는 인사도 많이 하지만, 이 말은 명령형이고, 일부 지방 사람들이 주로 쓰며, 상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다.

라. 특정한 때 인사말

새해 인사

새해 인사로 가장 알맞은 것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이다. 상대에 따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게.,”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등으로 쓸 수 있다. 이 말은 집안, 이웃, 학교 등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인사말이다.

세배할 때는 절하는 것 자체가 인사이기 때문에 어른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와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공손히 절만 하면 그것으로 인사를 다 한 것이며 어른의 덕담이 있기를 기다리면 된다.

한편 절하겠다는 뜻으로 어른에게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예의가 아니다. 가만히 서 있다가 어른이 자리에 앉으시면 말없이 그냥 공손히 절을 하는 것이 옳다. 다만 나이 차가 많지 않아 상대방이 절 받기를 사양하면 “절 받으세요.”, “앉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

덕담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내리는 것이다. “새해 복 많이 받게.” “소원 성취하게.”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어른의 덕담이 있는 뒤에 “과세 안녕하십니까?”와 같이 말로 인사를 한다. 이 때 특별히 “만수무강하십시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와 같이 건강과 관련된 말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의도와 달리 상대방에게 ‘내가 그렇게 늙었나?’ 하는 서글픔을 느끼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에도 등산 많이 하세요.”와 같이 기원을 담은 인사말이 좋다. ·

축하와 위로의 인사말

어른의 생일일 경우 “생신 축하합니다.”라고 인사하고, 상대에 따라 “생일 축하하네.”, “생일 축하해.”와 같이 쓰면 된다. 다만, 흔히 쓰는 ‘축하 드립니다’는 옳지 않은 말이다. ‘말씀’은 드리지만 ‘축하’나 ‘감사’는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갑이나 고회 등의 잔치에서는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이 말하면 된다. “오래 사십시오.”나 “만수무강하십시오.” 등과 같은 인사말은 좋지 않다. 또 “건강하십시오.”는 형용사를 명령형으로 만든 것이어서 문법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더러 명

령형이어서 옳은 말이 아니다.

집안 결혼식에 가서 결혼하는 사람에게도 “축하합니다.” 등으로 말하면 된다. 입학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도 “합격을 축하합니다.” 등과 같이 말하면 된다.

문병을 가게 될 경우에는 “좀 어떠십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십니까?” 등으로 인사하고 불의의 사고일 때는 “불행중 다행입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 물론 상대에 따라 “좀 어떻니?” “얼마나 고생이 되니?”처럼 말할 수 있다. 문병 때는 어느 경우에나 털고 일어나리라는 희망을 가져야 하므로 끝까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밖에 환자에게 이런저런 말을 하거나 물어 보는 것은 모두 예의에 어긋난 것이다. 아픈 사람이 궁금해할 만한 일 가운데 밝은 것으로 화제를 삼아 가만가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다.

문병을 마치고 나올 때는 “조리(조섭) 잘 하십시오.” “속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된다.

문상

문상 가서 가장 예의에 맞는 인사말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어떤 말도 상을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조의를 표하는 것이 된다.

다만 굳이 인사말을 해야 한다면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슬프십니까?”, “뉘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등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버지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대고(大故)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어머니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상사 말씀 무어라 여쭙오리까?”, 남편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천붕지통(天崩之痛)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내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고분지통(叩盆之痛)이...”, 형제 상을 당한 사람에게 “할반지통(割半之痛)...” 하기도 하였고, 또 자녀 상을 당한 사람에게는 “참척(慘慼)을 당하시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기도 했으나 오늘날 굳이 복잡하게 이런 어려운 말로 따로따로 인사말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모 상의 경우에만 전통적인 인사말 “얼마나 망극(罔極)하십니까?”를 나이 등 상황에 맞게 적절히 쓸 수 있다.

VII. 맺는말

바르고 고운말은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아름답게 해 준다. 같은 말이라도 웃는 낯으로 곱게 말하면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다. 속담에도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였으니 우리 생활에서 고운말이 지니는 중요성은 참으로 크다.

누구나 말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고, 자신의 국어를 쓰는 데 불편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칫 말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기 쉽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 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말에는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 거칠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이를 구별하고 달리 평가하게 된다. 곧 말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까지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말을 사람을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로 삼았던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도 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잠시도 바른말 고운말 쓰기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항상 바른말 고운말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을 늘 되새겨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말은 바른 말인가, 말하는 태도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한가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잘 모르는 부분, 자신이 없는 부분은 꼭 찾아보고 물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바른말 고운말을 쓰는 것을 생활화하고 습관화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바른말 고운말 쓰기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은 고운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로 꾸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은 진정한 바르고 고운말로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바르고 고운말은 진실하고 고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다.

▣ 담당연구원 : 허철구

(국립국어연구원 어문실태연구부)

바 른 말 고 온 말

발행일 : 1996년 4월 30일

발 행 : 문 화 체 육 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1가 82-1

(우) 110-703

(전화) (02)720-4926/722-1328

(전송) (02)737-7357

인 쇄 : 민 성 문 화 사

(전화) (02)266-5045

정간위심의필 96-13-3-13

ISBN 89-7820-033-8 03710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28100-86510-47-9604

▣ 표지 제자는 문화체육부에서 개발한 혼민정옴체임.